



part

05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2014 World Grain Market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표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Wheat (a)	128.1	125.7	144.8	140.5	150.9	144.0
Coarse Grain (b)	112.3	117.0	124.8	125.2	142.2	142.3
Soybean (c)	91.4	91.7	92.2	100.6	111.0	112.3
Total (a+b+c)	331.8	334.4	361.8	366.3	404.1	398.6
전년 대비 증감률(%)	1.6	0.8	8.2	1.3	10.3	-1.4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2013/14 시즌 대두(Soybean)를 포함한 곡물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0% 가량 증가한 '404.1 백만 톤'으로 특히 옥수수(Corn)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며 2013년 하반기에 나타난 Panamax 와 Supramax 시황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해상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4% 감소한 '398.6 백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곡종별로 보면 옥수수(Corn)와 대부(Soybean) 물동량은 전 시즌과 큰 차이 없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맥(Wheat)의 물동량이 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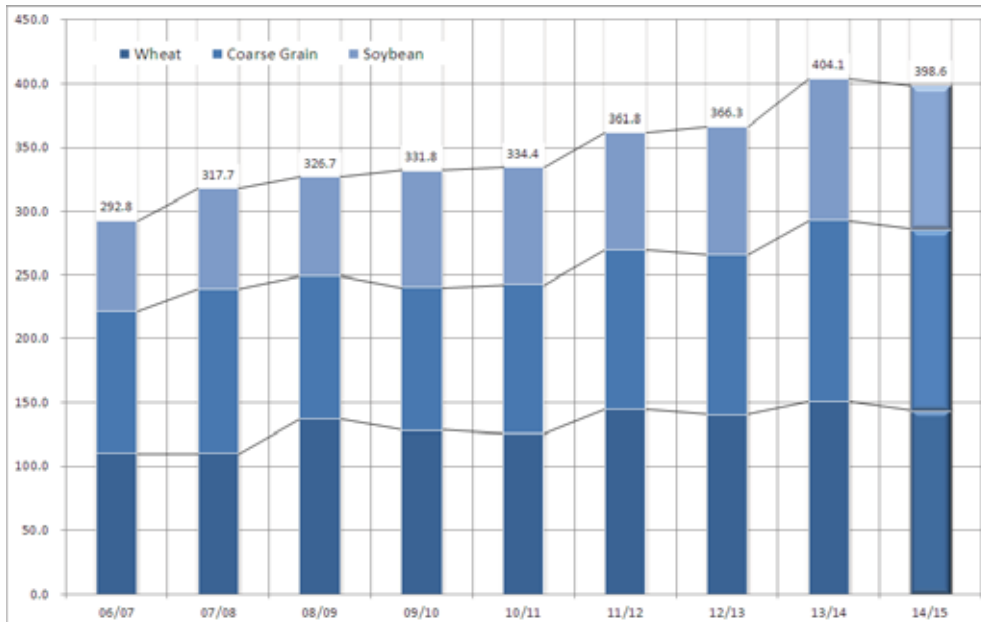
* ydjung@kamcosimc.com, 02-2189-5512.

즌 대비 4.6%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동 화물 주로 운송하는 50,000톤 급 이하 선박들의 운임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써 2011/12 시즌부터 곡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뒤 다음 해에는 증가 추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 엘리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상 이변과 곡가 급변동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물동량 예측치 또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곡물 위원회(International Grain Council)’는 5월 29일자 보고서에서 2014/15 시즌 소맥(Wheat)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4.0% 가량 감소하는 한편 옥수수 물동량은 전 시즌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Clarkson’이나 ‘USDA’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으나 대두(Soybean) 물동량의 경우 12.5%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상기 두 기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수입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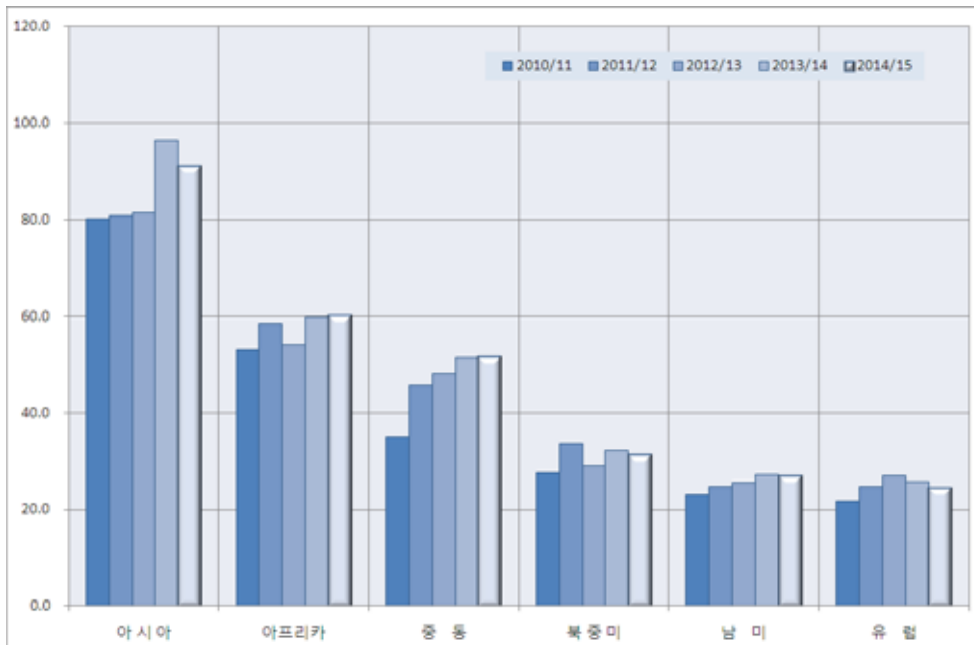
표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243	270	266	293	286	-2.4
아 시 아	80.2	80.9	81.4	96.4	91.1	-5.5
아프리카	53.1	58.6	54.2	59.7	60.3	1.0
중 동	34.9	45.7	48.0	51.4	51.6	0.4
북 중 미	27.7	33.7	29.0	32.3	31.4	-2.8
남 미	23.1	24.8	25.6	27.3	27.1	-0.7
유 럽	21.8	24.8	26.9	25.7	24.6	-4.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그림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영국의 해운 리서치 기관인 'Clarkson'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륙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일단 아시아 지역의 수입량이 전 시즌 '96.4 백만 톤' 대비 5.5% 가량 감소한 '91.1 백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작황 개선 등의 원인으로 전 시즌 대비 33% 가량 크게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대 곡물 수입국인 일본의 수입량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한국의 수입량은 5% 증가한 '13.8 백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4/15 시즌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지역의 곡물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거의 변동이 없을 전망이며 유럽의 경우 러시아 지역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입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수출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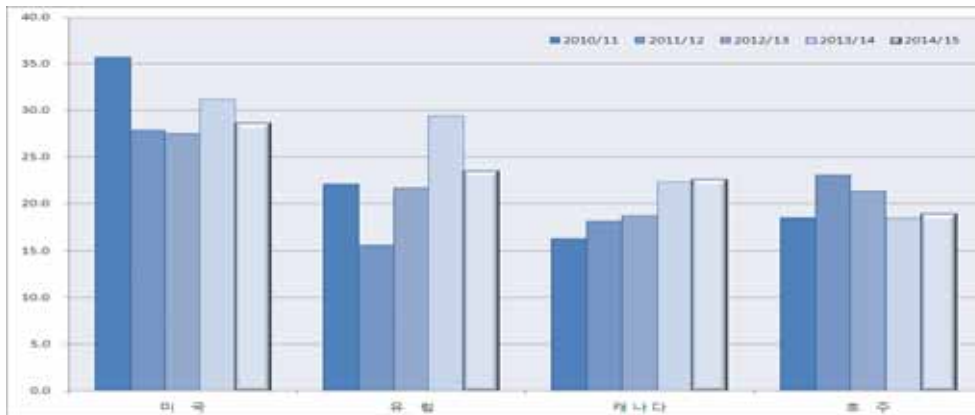
표 3. 주요 국가별 수매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25.7	144.8	140.5	150.9	144.0	-4.6
미 국	35.7	27.9	27.5	31.2	28.6	-8.3
유 럽	22.1	15.6	21.7	29.4	23.5	-20.1
캐 나 다	16.3	18.2	18.7	22.3	22.6	1.3
호 주	18.5	23.1	21.3	18.5	18.9	2.2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그림 3. 주요 국가별 수매 수출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2014/15 시즌 전 세계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4.6% 감소한 ‘144.0 백만 톤’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 국가별로는 유럽의 수출량이 20%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공급 요인이 아닌 주변 국가들의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미국의 수출량 또한 8.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주와 캐나다의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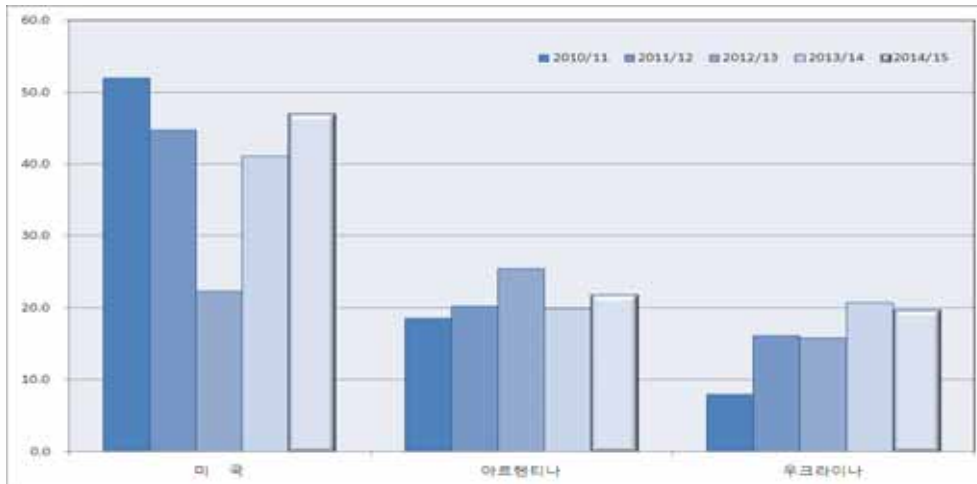
표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17.0	124.8	125.2	142.2	142.3	0.1
미 국	52.0	44.7	22.3	41.1	47.0	14.4
아르헨티나	18.5	20.2	25.4	19.9	21.8	9.5
우크라이나	7.9	16.1	15.8	20.8	19.7	-5.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그림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MAY, 2014.

주로 사료용 옥수수로 구성된 Coarse Grain 물동량의 경우 2014/15 시즌 물동량이 전 시즌과 거의 변동 없는 ‘142.3 백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국별로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이 각각 14.4%와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정정 불안 등의 원인으로 수출량이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Panamax 와 Supramax 운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전 시즌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운임 상승이 금년에도 나타날 것을 많은 선주들은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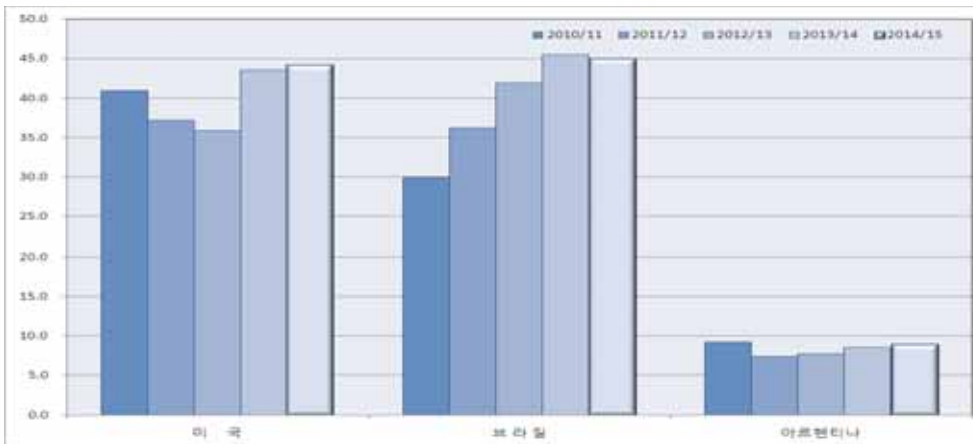
표 5. 주요 국가별 Soybean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91.7	92.2	100.6	111.0	112.3	1.2
미 국	41.0	37.2	35.9	43.5	44.2	1.6
브 라 질	30.0	36.3	41.9	45.5	45.0	-1.1
아르헨티나	9.2	7.4	7.7	8.5	9.0	5.9

자료: USDA

그림 5. 주요 국가별 Soybean 수출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2014/15 시즌 대두(Soybean)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소폭 증가한 ‘112.3 백만 톤’에 이를 전망이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수출량이 1.6% 증가하는 반면 브라질의 수출량은 1.1% 감소하며 두 국가의 순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15 시즌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사상 처음으로 7천만 톤을 넘을 전망이며 이는 전 세계 대두 물동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철광석을 주로 운송하는 Cape 선형에 이어 Panamax 와 Supramax 운임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 만큼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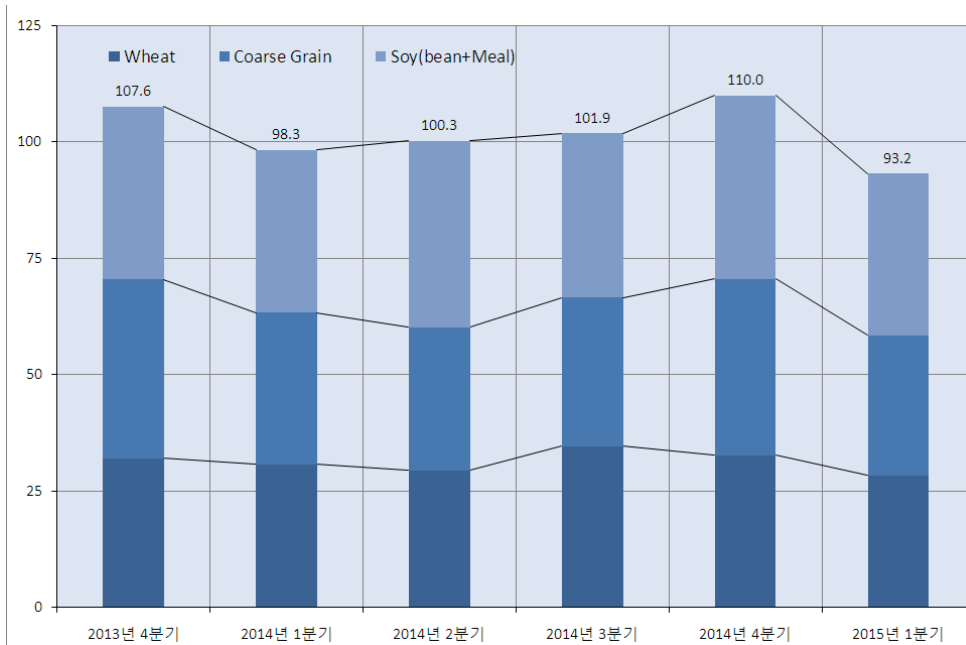
표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Wheat	32.0	30.7	29.4	34.6	32.7	28.3
Coarse Grain	38.5	32.6	30.8	32.0	37.9	30.2
Soy(bean+Meal)	37.1	35.0	40.1	35.3	39.4	34.7
Total	107.6	98.3	100.3	101.9	110.0	93.2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MAY, 2014.

그림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MAY, 2014.

영국의 다른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인 'SSY(Simpton Spence & Young)'가 제시하고 있는 분기별 곡물 물동량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물동량이 많으며 특히 매년 4분기에 곡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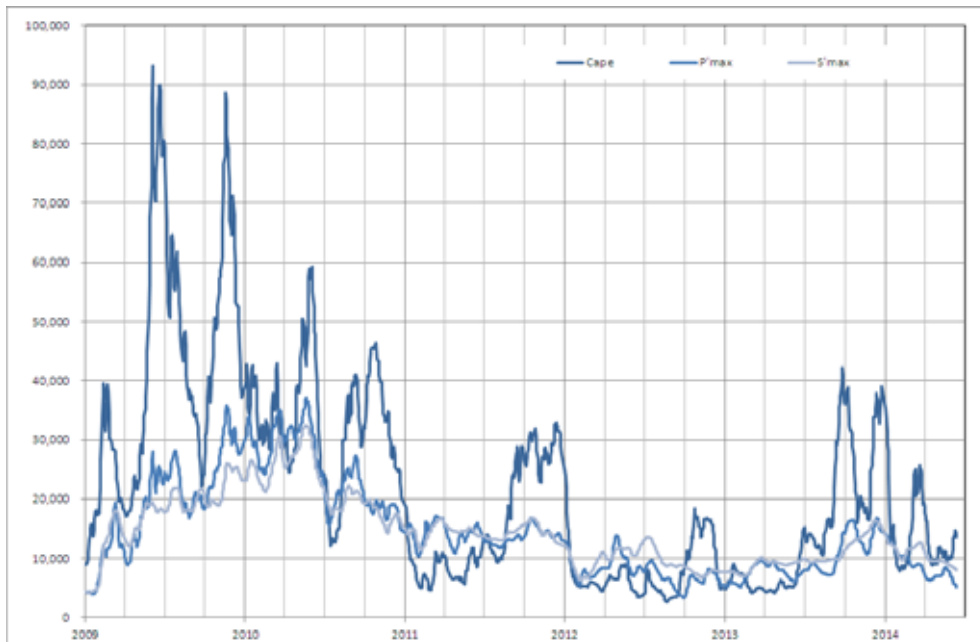
이는 곡물 뿐 아니라 전체 건화물 물동량의 약 30%와 25%를 차지하는 철광석과 석탄 화물 물동량에서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으로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되어 인도되는 선박량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적음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운임이 상승할 주요한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며 현재 운임 선물 시장(Forward Freight Market)에서는 4분기 용선료가 현물 대비 거의 2배 가량 높은 극심한 Contango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곡물 메이저 등 주요 화주들은 4분기를 겨냥하여 기간 용선 선박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움직임들이 목격되고 있다.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최근 건화물선 시황

그림 7. 최근 건화물선 선형별 용선료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Cape 선형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많은 중국 항만의 철광석 재고가 거의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철광석 가격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주요 제철소들은 철광석 수입을 자제하고 있는 Cape 시황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 정부의 원자재 담보 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한편 금융권에서도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지 않는 등 수입 여건이 계속 악화되며 단기적인 Cape 시황 하락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anamax 시황의 경우 용선료가 20개월 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운항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선 아래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선주들은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싱가포르나 중국 근해에 선박을 세워놓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Supramax 시황 또한 약세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중국의 철강 제품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Panamax 선형에 비해 용선료는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시황은 철광석 화물 물동량이 10% 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Cape 선복 증가율은 4% 수준에 그치며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형선을 중심으로 작년과 같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황 상승 시점은 중국의 철광석 재고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한편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이 증가하는 시점으로 예상되며, Cape 시황 상승에 따라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며 Panamax 와 Supramax 시황 또한 동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표 7. 수역별 · 기간별 곡물 운임 현황

단위: US\$/MT

기 간		USG 운임	PNW 운임
2014년	7월	45.87	26.13
	8월	47.38	27.05
	9월	51.03	28.59
	3분기	48.09	27.26
	4분기	52.78	30.21
2015년		52.41	29.86
2016년		52.76	30.02

자료: 캄코선박운용(주)

‘세계 곡물 협회(International Grain Council)’에 따르면 6월 10일 기준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일본에서 양하하는 이른바 ‘USG 운임’은 톤 당 ‘\$44’ 선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사 계산으로 2014년 6월 13일 현재 ‘USG 운임’은 톤 당 ‘\$43.73’으로 계산되는 한편 미국 서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한국에서 양하하는 ‘PNW 운임’은 톤 당 ‘\$24.89’ 선으로 산출된다.

선물 운임의 경우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현물 대비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금년 3분기 USG 운임은 현물 대비 톤 당 ‘\$4.36’ 높은 ‘\$48.09’ 수준으로 보이며 이론적으로 4분기 운임은 톤 당 ‘\$50.0’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된다.

Panamax 선형의 경우 선주들이 추가 용선료 하락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박 운항을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운임은 거의 저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시일 내 반등이 예상된다.

한편 금년 하반기 곡물 운임은 곡물 물동량이나 Panamax 와 Supramax 선박 공급량인 자체적인 수요 공급 요인보다는 Cape 시황 변동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것처럼 높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이는 운임에 대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